

상하수도 경영 효율성 증대 행정력 집중

익산시, 2021년까지 410억원 투입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실시

익산시가 상수도관망 최적화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에 주력한다.

13일 익산시는 김용주 상하수도사업 단장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개선해 신뢰받는 공기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해 상수도관망을 수계별로 분리해 블록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

또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636km 중 74km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현재 73%인 유수율을 최대 80%까지 개선한다.

이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남중동·영등동·신흥동 등 신흥수계 11개 블록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팔봉동·삼성동·어양동 등 팔봉수계 14개 블록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낭산면·망성면·여산면 등 북부권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금마배수지 확장과 기본·시설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김용주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단장이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시는 또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도모한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의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2016년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3.3%며 시는 오는 202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구상이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t당 550원에서 t당 880원으로 310원 상승하게 된다.

더불어 녹색 정정도시 건설을 위해 남부2·3, 북부2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진행한

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오수관로 28km를

정비하고 3200여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해 구도심 악취 해소와 청소비용 절감 등에 나선다.

김용주 단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상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제는 장학금 60명은 2017년에 개최된 예술과 체육분야 전국단위 규모의 대회에서 상위 3위 이내 입상한 학생들로

지난해 12월 선발 공고를 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술분야 25명과 체육분야 35명의 장학금이 선발되었

으며, 총 6천여여명인 장학금이 지급됐다.

우수중학생으로 선발된 한 학생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수강혜택으로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관

군산시, 설 명절 연휴기간 AI 특별방역 추진

군산시는 귀성객 등 인구가 많이 많은 이번 설 명절 기간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특별방역 추진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방역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연락 및 초동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 운영되며, 축산농가 예방 활동은 물론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 및 축산농가 모임 등은 자체토록 지도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외부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기존 거점소독시설 1개소도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명절 전후 축산농장과 관계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귀성객과 관광객이 밀집하는 터미널과 철도역 등에는 발판 소독조 및 가축방역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공이용 시설, 읍면동 등에 현수막 30여개를 설치하고 마을방송 및 LED 전광판을 통한 AI 차단방역 홍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채경석 농정과장은 "설 연휴동안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방역 활동에 철저히 임해 주길 바란다"며 "AI 방역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며,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AI 발생방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절 전후 축산농장과 관계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귀성객과 관광객이 밀집하는 터미널과 철도역 등에는 발판 소독조 및 가축방역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공이용 시설, 읍면동 등에 현수막 30여개를 설치하고 마을방송 및 LED 전광판을 통한 AI 차단방역 홍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채경석 농정과장은 "설 연휴동안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방역 활동에 철저히 임해 주길 바란다"며 "AI 방역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며,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AI 발생방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절 전후 축산농장과 관계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청소 및 소독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생 143명 장학금 지급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은 13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우수중학생 83명과 예제는 장학생 60명 총 14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우수중학생 83명은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2017학년도 학력진단평가 성적과 중학교 내신 성적을 종합한 결과가 상위 100위 이내인 학생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고 선발된 우수중학생들에게 총 1억3천8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예제는 장학생 60명은 2017년에 개최된 예술과 체육분야 전국단위 규모의 대회에서 상위 3위 이내 입상한 학생들로

지난해 12월 선발 공고를 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술분야 25명과 체육분야 35명의 장학금이 선발되었

으며, 총 6천여여명인 장학금이 지급됐다.

우수중학생으로 선발된 한 학생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수강혜택으로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관

심이 높아져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 학생은 "차부신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량을 연마하여 군산을 빛내는 인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준수 부시장은 "인문분야와 예술, 체육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장학금 지원사업은 우수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인문분야의 학력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양성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까지 우수중학생과 예제는 장학생 1,462명을 선발하여 30억9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짧은 연휴기간으로 귀성객과 관광객이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은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하여 ▲도로 파손 ▲불법주차차 차량 지도 ▲상하수도 긴

급보수 ▲쓰레기 처리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에서는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상황실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연휴기간 운영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원 민원봉사과장은 "명절을 맞아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의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총 290건의 1조 837억 원이며, 신규 사업 28건 1,053억 원, 계속사업 262건 8,784억 원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 기술 기반구축사업(20억 원) ▲군산-어청도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건조(38억 원)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개설(70억 원) ▲군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10억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5억 원) 등 28개 사업이며, 계속사업은 ▲중대형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38억 원) ▲비응환 정온도 개선사업(70억 원)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20억 원)

▲폐지된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124억 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32억 원) ▲육회천 재해예방사업(100억 원) 등 262개 사업이다.

문동신 시장은 정부의 업무보고 방향에 맞춘 신규 사업 발굴과 순기에 맞는 국가예산 확보 대응전략을 강조했으며, 각 국소장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에 원광대병원은 88.2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60.91점을 훨씬 웃도는 종합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원광대병원은 1차평가 1등급(2014), 2차평가 1등급(2015)에 이어 3년연속 1등급을 획득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하고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를 진료한 6,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는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률 등 3개의 평가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은 88.2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60.91점을 훨씬 웃도는 종합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원광대병원은 1차평가 1등급(2014), 2차평가 1등급(2015)에 이어 3년연속 1등급을 획득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하고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를 진료한 6,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는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률 등 3개의 평가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 성장·발전 동력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 2019년 국가예산 발굴·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에 이어 2019년에도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시장 주재로 2019년도 국가예산 발굴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총 290개 사업 1조 837억 837만 원의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된 28개 사업(1,053억 원)에 대한 국가예산의 필요성과 추진일정 등이 보고됐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돼 향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속도를 높였다.

군산시의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총 290건의 1조 837억 원이며, 신규 사업 28건 1,053억 원, 계속사업 262건 8,784억 원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 기술 기반구축사업(20억 원) ▲군산-어청도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건조(38억 원)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개설(70억 원) ▲군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10억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5억 원) 등 28개 사업이며, 계속사업은 ▲중대형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38억 원) ▲비응환 정온도 개선사업(70억 원)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20억 원)

▲폐지된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124억 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32억 원) ▲육회천 재해예방사업(100억 원) 등 262개 사업이다.

문동신 시장은 정부의 업무보고 방향에 맞춘 신규 사업 발굴과 순기에 맞는 국가예산 확보 대응전략을 강조했으며, 각 국소장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에 원광대병원 88.2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60.91점을 훨씬 웃도는 종합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원광대병원은 1차평가 1등급(2014), 2차평가 1등급(2015)에 이어 3년연속 1등급을 획득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하고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를 진료한 6,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는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률 등 3개의 평가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원광대병원 88.2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60.91점을 훨씬 웃도는 종합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원광대병원은 1차평가 1등급(2014), 2차평가 1등급(2015)에 이어 3년연속 1등급을 획득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하고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를 진료한 6,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는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률 등 3개의 평가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원광대병원 88.2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60.91점을 훨씬 웃도는 종합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원광대병원은 1차평가 1등급(2014), 2차평가 1등급(2015)에 이어 3년연속 1등급을 획득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